

자료제공 : 2026. 5. 24.(일)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병준	02-2133-7715
광장정책팀장	김정숙	02-2133-7711
광장계획팀장	박학균	02-2133-7738
광장관리팀장	김진영	02-2133-7731
관련 누리집	https://gwanghwamun.seoul.go.kr (광화문광장 누리집)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광화문광장, BTS·감사의 정원 영향 전년 대비 방문객 2배 가까이 급증

- 5.13.~23. 광화문광장 방문객 134만 7천 명... 작년 동기 대비 약 64만 명 급증
- 3월 BTS 공연 시작으로 '감사의 정원' 개장, '광화문책마당' 등 시민참여 인프라 효과
- 감사의 정원,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가치 알려
- 야간 방문객 증가에 '감사의 빛 23' 매일 8시부터 자정까지 연속 점등으로 확대 운영
- 지하 '프리덤 홀'도 운영시간 2~3시간 연장... 시민·관광객 공유하는 공간으로 발전

☐ 연간 2,700만 명이 찾는 서울 대표 랜드마크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월 13일(수)부터 23일(일)까지 약 열흘간 '광화문광장' 방문객은 134만7,3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750명 대비 63만 6,600명,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5.13.~5.23.) : '26년 636,600명 증가('25년710,750명, '26년 1,347,350명)

<5.13.~23. 광화문광장 방문객 134만 7천 명… 작년 동기 대비 약 64만 명 급증>

- 서울시는 올해 3월 펼쳐진 BTS 컴백공연을 통해 광화문광장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매주 금~일 까지 열리는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책마당’과 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다양화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 또한 지난 12일(화) 모습을 드러낸 ‘감사의 정원’도 한몫을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공간이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대한민국의 성장과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23개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형상화한 6.25m의 지상 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되어있다. 실제로 ‘감사의 정원’에는 참전유공자들이 조형물 앞에 함께 모여 전우들의 헌신을 기리며 옛 추억과 감회를 나누고, 교육 목적으로 자녀의 손을 잡고 찾은 가족들과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인근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 특히 세계 각국에서 ‘감사의 정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의 국기가 붙은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조형물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참전 역사를 확인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하 ‘프리덤 홀’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모양이다.
- 다양한 해외언론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콜롬비아 방송사 '레드마스

(Red+ Noticias)'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감사의 정원을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호 관계를 상징”이라 밝히며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국제 연대의 의미를 담은 장소"라고 소개했다.

- 루마니아 온라인 종합 뉴스 플랫폼 ‘아르키데(Archyde)’에서도 13일(현지시간) “감사의 정원은 한국의 존재가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공 사례라는 점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간 방문객 증가에 ‘감사의 빛 23’ 매일 8시부터 자정까지 연속 점등으로 확대 운영>

-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이 또 하나의 서울의 도심 야경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상징조형물인 ‘감사의 빛 23’은 눈으로 관람하는 것은 물론 조형물에 앉아서 쉬면서 광화문광장과 서울의 도심을 바라 볼 수 있다.
- 특히 저녁 시간 하늘을 향해 빛을 쏘아 올리는 빗기둥 ‘감사의 빛23’을 보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30분 간격으로 10분씩 운영하던 ‘감사의 빛23’ 점등 시간을 당분간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연속 점등하는 형태도 확대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참전국의 희생과 연대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지하 ‘프리덤 홀’ 또한 휴관 없이 월~목요일은 기존 오후 8시에서 10시로 금~일요일은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 13일(수)부터는 프리덤홀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전시해설(도슨트) 프로그램도

매일 12회에 운영 중이다. 전시해설은 미디어월 4개소, 총 13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포함해 회당 20명씩, 약 40분에 걸쳐 운영된다.

-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직접 꼽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매년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서울의 상징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서울시민에게는 자부심과 여유의 공간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archyde.com/italian-ambassador-visits-seouls-garden-of-gratitude-memorial/>

26. 5. 23. 오후 12:40

Italian Ambassador Visits Seoul's Garden of Gratitude Memorial - Archyde



Italian Ambassador Visits Seoul's Garden of Gratitude Memorial

MAY 13, 2026 BY OMAR EL SAYED - WORLD EDITOR

Seoul recently dedicated the "Garden of Gratitude" memorial at Gwanghwamun Square, honor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s to the nation's stability. Attended by the Italian Ambassador, the ceremony underscores South Korea's strategic use of historical memory to fortify diplomatic ties and reinforce its position within the evolving global democratic alliance.

To the casual observer, the dedication of a garden in the heart of Seoul might seem like a local ceremonial affair—a moment of quiet reflection amidst the bustle of a modern metropolis. But in the high-stakes arena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is no such thing as a purely local gesture. This memorial is a masterclass in "memory diplomacy." By rooting its modern identity in the gratitude owed to international partners, South Korea is doing much more than planting trees. It's anchoring its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shared history of the global community.

Earlier this week, as the Italian Ambassador toured the site, the subtext was clear. This isn't just about looking backward; it is about looking forward. In an era where the Indo-Pacific is the primary theater of geopolitical friction, South Korea is utilizing its historical narrative to build a "soft power" shield. By honoring the nations that stood by them during their most vulnerable hours, Seoul is reinforcing the mor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its current alliances.

The Silent Language of Gwanghwamun Square

Gwanghwamun Square has always been the heartbeat of Korean political life. It is where protests roar, where celebrations erupt, and where the state projects its most

potent symbols. Placing the Garden of Gratitude here is a calculated move. It place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t the very center of the Korean national consciousness.



(기타 주요 외신 보도)

콜롬비아, 레드마스

<https://redmas.com.co/amp/tendencias/corea-del-sur-pone-a-colombia-en-lo-mas-alto-icoico-monumento-sera-visitado-por-27-millones-de-personas-al-ano-20260515-0045.html>

영국, 로이터통신

<https://www.reutersconnect.com/item/seoul-dedicates-garden-of-gratitude-memorial-at-gwanghwamun-square/dGFnOnJldXRlcnMuY29tLDIwMjY6bmV3c21sX01UMU5VUIBITzAwMEhGMDVCOA>

□ (지상) 감사의 빛 23



□ (지하) 프리덤 홀

